

“설 명절 트래픽 증가 걱정 끝”... 이통사, 품질관리 ‘만전’

SKT, 통신서비스 24시간 모니터링
KT, 네트워크 집중 관리체계 운영
LGU+, ‘연휴 특별 소통 대책’ 수립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품질관리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설 연휴를 앞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일평균 1300여 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이동통신 품질과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티맵(TMAP)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고속도로에서 연휴 전날인 20일 오후 귀성길, 설 당일 귀경길 가장



S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마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SKT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연휴 기간 중에는 설 당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최고점에 달해 평시 대비 2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T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개인·소규모 인원 단위의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성

묘지 및 공원묘지, 리조트와 캠핑장 등 통신 인프라 점검도 마쳤다.

성진수 SKT 인프라서비스CT 담당은 “고객들이 불편 없이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설 연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5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 운영에 나선다

고 17일 밝혔다.

KT는 일 평균 12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근무하는 등 집중 감시와 긴급 복구 임시 TF도 운영한다.

KT는 명절 기간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KTXX역, 공항, 쇼펜센터, 변화가 등 전국 1000여개 지역의 통신 인프라 품질 점검과 용량 증설 등 서비스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로밍 트래픽을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국의 통신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도 사전에 정비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다.

설 연휴 기간인 20일부터 24일까지 비상운영체제에 돌입, 고객들이 데이터와 음성 등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두리 해제로 인해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5G·LTE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에 5G 및 LTE 최적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전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LTE 기지국을 사전 점검해 품질을 측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 및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명절의 특성을 감안해 중요 거점지역에는 현장요원을 배치,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기간 U+tv VOD 및 OTT 동영상 시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캐시서버 용량 증설 등을 통해 트래픽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 글로벌 ESG 혁신가 지원... 대상에 ‘닷’

‘라이프스굿 어워드’ 시상식 개최
시각장애인 디스플레이 ‘닷패드’

LG전자가 글로벌 ESG 혁신가들에 감사를 전했다.

LG전자는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ESG 혁신가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라이프스굿 어워드(Life’s Good Award)’를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어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과 환경 보호 등 솔루션을 지원받아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선정하는 자리다. ESG 비전인 사람과 지구를 위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는 활동 일환으로 개최됐다. 글로벌 ESG 분야 석학들과 LG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위원회’가 참여한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실현가능성(Feasibility)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LG전자는 61개국 334개 응모팀 중 1·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닷(Dot)’, ‘솔루션(SOLUTUM)’, ‘데이원랩(Day1Lab)’, ‘노나 테크놀로지(NON



LG전자가 ‘라이프스굿 어워드’를 통해 국내외 ESG 혁신 스타트업을 시상했다.

A Technologies)’ 등 4개 기업에 시상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닷패드’를 제안한 ‘닷’이 대상을 받았다. 2400개의 점자핀이 패드 표면을 구성하는 촉각 디스플레이로 PC나 모바일 화면 속 그림, 지도 등 디지털 시각 자료를 손끝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래픽으로 바뀌준다.

‘닷’은 “장애인들에게 이미지를 촉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

이어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안한 이스라엘 솔루션이 금상, 자연 분해가 가능한 탄수화물 복합체 기반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제안한 데이원랩이 은상을 받았다. 미국 노니 테크놀로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휴대용 담수화 장치를 제안해 동상 영예를 안았다.

LG전자는 본선에 참가한 4개 팀에 총 105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제안한 솔루션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LNG운반선 3척 수주

새해 첫 성과... 9714억 계약

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사와 20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3척을 9714억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9.8m, 너비 48.9m 규모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LNG운반선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을 수주해오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총 173척 가운데 가장 많은 44척을 수주한 바 있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클락슨포캐스트 클럽(Clarkson Forecast Club)’에서 올해 LNG운반선 발주가 83척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설 맞이 대잔치’... 세뱃돈 등 풍성

22일까지 명절 선물 경품

코웨이가 다가오는 계묘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담은 ‘설 맞이 대잔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코웨이 자사물인 코웨이닷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뱃돈 증정과 함께 다양한 명절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세뱃돈 받기 이벤트’는 코웨이 제품 구매 고객들 중 선착순 200명에게 네이퍼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새해 소망 이벤트로 가장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선택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홍삼 선물세트(10명), 트리플오일 선물세트(20명), 전통 약과 선물세트(30명) 등을 선물로 준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2월까지 코웨이 비렉스 시그니처 안마의자를 포함한 안마의자 3종(MC-SC01, MC-S01, MC-P02)을 대상으로 신규 렌탈 고객에게 약정 기간 동안 최대 6개월의 렌탈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시불 구매 시 최대 100만원도 할인한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CC, 유니버설 디자인 ‘컬러뱅크’ 선포

1249종의 컬러 스펙트럼

KCC가 문화, 산업, 건축환경 등 사회전반에서 선호하는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KCC 컬러뱅크(Color Bank) Vol.1.6’를 선보인다.

17일 KCC에 따르면 컬러뱅크 Vol.1.6에서 선보인 총 1249종의 풍부한 컬러 스펙트럼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일반 소비자와 대리점이 원하는 컬러를 찾기 쉽게 구성했다. 아울러 안전배색을 강조하는 컬러 유니버설디자인(CUD)을 적용해 안전까지 고려하는 디자인 색채를 강조했다.

1995년 이후 올해로 여섯번째 제작한 컬러뱅크 Vol.1.6은 색상과 색조에 기초한 아홉가지의 체계화된 그룹으로 분류해 효율적인 색상 정보를 지원한다. 사용자 편의향상을 위해 참조용 먼셀값과 색인코드, 베이스 표기 등 정보를 추



KCC의 컬러뱅크(Color Bank) Vol.6.

가했고 아홉가지의 컬러군에 대한 트렌드 정보와 컬러 배색 추천 등 다양한 정보를 QR 코드 스캔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